

##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라

### - 복음으로 여는 학개 -

학개1:1-7, 고린도전서3:16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사람인 아담이 이 언약을 놓쳐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왔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와 모든 응답을 회복시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새롭게 거듭나고 발견되는 은혜의 시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한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지 16년 이후인 BC.520년에 기록된 말씀이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은 바사(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의 칙령(BC.536)에 따라 성전건축을 위해 포로에서 귀환한 약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건축을 중단했던 상태였다.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문화를 보고, 페르시아의 문명, 건축 문화, 기술을 연마하고 돌아오니 다른 것보다 내 집을 짓고 싶은 것이다. ‘저 성전 지어봤자 뭐가 도움이 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건축과 회복이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망각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전건축과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개서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성전건축과 회복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1장)이고, 다른 한 가지 주제는 성전건축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한 내용(2장)이다.

### 1.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다. 그들은 성전은 황폐한데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학개 1장 4절이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판벽은 집 안에 조각이나 나무, 대리석으로 멋있게 짓는 것이다. 또, 학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응답해주셨는데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순위를 바꿔야 한다.

(2)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 하신다. 영적인 것을 등한시 하면서 자기 사업과 부동산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다. 학개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징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1장 6절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 1장 9절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도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틀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학개서 1장 10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회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고령화문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 취업문제, 늦은 결혼문제, 저출산문제,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중독과 타락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문제는 100년이 다 되도록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미국의 무역전쟁문제, 일본과의 갈등, 신종 코로나 문제까지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해결되는가, 교육제도를 개선하면 되는가, 복지제도를 더 좋게 만들면 되는가,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몰아내면 되는가, 과학이나 AI를 발전시키면 되는가.

(3) 오늘 우리는 학개서에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성전, 곧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조금 계획만 해보기를 바란다. 서밋 타임, 복음소식암송, 전도캠프, 선교, 지교회, 다락방, 집중훈련을 계획해 보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결론나야 한다. 어떤 문

제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아무 문제없다. 이 모습이 램넛트, 남은자의 모습이며, 복의 근원의 모습이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된 성전을 건축하고 완전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였을 때 받을 응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에서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다. 성전회복은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최고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새 틀인 것이다.

(1) 나를 든든히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다. 학개서 2장 4절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야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같이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내라는 말을 해도 힘이 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2)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학개서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란다.

(3) 말씀성취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 학개서 2장 5절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계약을 하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4) 세계를 진동하는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 학개서 2장 6절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응답이 여러분과 후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5) 모든 나라를 움직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학개서 2장 7절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하신다.

(6) 경제적인 축복도 약속하셨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하신다.

(7) 나중에는 더 잘되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학개서 2장 9절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보다 나중, 갈수록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약간의 영적인 계획만 하면 된다.

(8) 평강의 언약도 약속하셨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두렵고 불안하다. 우리는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

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복음전하기 위해서이다.

(9) 오늘부터 당장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학개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영적인 계획을 하면 오늘부터 응답받는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응답을 주신다.

(10) 우리를 대적하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변화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다. 학개서 2장 22절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오히려 살리는 빛의 대열에 서야 하겠다.

###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참된 성전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조금만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나라에 무너진 교회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3. Dream, 꿈이다. 꼭 해야 하는데 멈추고 있는 당연하고 필요한 절대적인 부분을 찾아 24시 한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사람들은 헛된 것, 다른 것을 24시 한다. 우리는 24시 해야 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4. Image, 이미지이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그림을 그리다가 역사에 남는 작품을 남겼다.
5. Practice, 실천이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서밋 타임을 실천해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의 영적상태를 회복시켜서 이 시대에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학개서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